

# 나주에서 로컬푸드 먹는 day

### 로컬푸드 공급확대 MOU 체결 1주년 이벤트 한국농어촌공사 구내식당서 소비촉진 홍보



나주시는 3일 한국농어촌공사 구내식당에서 지역 농산물 신뢰도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데이(day)' 행사를 개최했다. '로컬푸드 데이'는 구내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현

신도시 14개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행사다.

기관별로 하루를 정해 100% 지역 농산물로 만든 중식을 제공하며, 농산물 먹거리 홍보 부스 운영과 생산자의 사진,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얼굴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 행사는 지난 해 11월 농식품부, 전라남도, 나주시, 14개 공공기관에서 체결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협약'(MOU)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전력거래소·한전KDN에서 로컬푸드 행사를 개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따른 상생·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연말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전KPSO 등 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데이와 같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갈 것"이라 전했다.

또한 "먹거리 상생에 공감대를 갖고 행사에 참여해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 영광군, 해역 패류 자원조성 적지조사 실시

### 백합생산량 감소

영광군은 연안갯벌 어촌계 12개 어장에 대한 패류자원 적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 서식지형 변화에 대응해 어장별 저질, 수온 등 해양특성을 분석을 통해 적합한 품종을 선정 및 집중 육성으로 어업소득을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영광군의 갯벌은 전남갯벌의 13.9%에 해당하는 145.5㎢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남해안의 품종이 북

상하여 자생할 정도로 번식환경과 서식지가 변동하여 패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해양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어장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열린 패류자원 적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패류 전문가들은 지난 1960년대 영광에는 전라남도 백합위판장이 설치될 정도로 생산력이 좋은 갯벌이었으나 소하천 방조제의 영향으로 현재 백합생산량이 감소하여 자원량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패류 중간육성장 개발 등을 통해 영광군 패류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어촌계장들은 "마을어장에서 패류를 채취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점이 있어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패류자원 적지조사를 통해 지역 어촌계에 적합한 패류 품종을 찾아 방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패류자원 복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단체장 선정



명현관 해남군수가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업인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존을 위해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발굴, 공로를 치하하고 우수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첫 제정됐다.

국가농정분야, 지방농정분야, 농촌진흥사업분야, 농업인분야, 농산분야 등 5개분야에 걸쳐 1차 서류심사, 2차 시상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졌으며,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방농정분야에서 최고

상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의 농경지를 보유한 대표적인 농업군으로 명현관 군수는 민선7기 농정분야 대표공약으로 농민수당을 도입, 전국 최초로 올해 첫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표명으로 농업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해남=서명환 기자

## 곡성군, 11일 고소득 창출 위한 임산물 활용 및 산업화 교육

곡성군이 오는 11일 산림과 회의실에서 '임산물 활용 및 6차 산업화 방안'을 위한 임업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올해 곡성군에서 운영 중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업인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림자원 분야 최고 전문가인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오득실 과장의 강사로 나서 6차 산업화와 임산물 활용 방안을 주제로 3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산림이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임업인들이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임산물을 통해 고소득을 창출을 하려면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촉구했다.

## 화순군, '어린이·청소년 흡연예방' 공연 개최

화순군은 3일부터 19일까지 15회에 걸쳐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흡연예방 교육은 뮤지컬 공연과 도전 금연 골든벨을 통해 전개할 예정이다.

흡연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자담배와 액상형 담배 등 다양한 담배가 출시되면서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흡연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간접흡연을 비롯한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흡연예방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흡연예방 뮤지컬은 화순군 최초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기대가 높다.

화순=박순철 기자

## 고흥군, 고교 3학년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

### 수험생활의 피로감 완화 위한 원기 회복 프로젝트

### 우리 지역 역사·문화 소중함 일깨우는 기회 제공



고흥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245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이번 힐링프로그램은 수험생활의 노고와 피로를 위로하고 고흥의 역사와 문화체험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지난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관람하고 소록도를 방문하여 한센인의 역사를 이해하고 두 간호사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참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도 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청문화박물관 견학하여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도자기 빚기 체험을 통해 그간 수험생활로 체험하지 못한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자원을 배우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고흥=한윤섭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